



장애인 재활병원 기공 지난달 31일 광주시 북구 본촌동 공시현장에서 열린 광주 장애인 재활 전문병원 기공식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김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발과 버튼을 누르고 있다. 150개 병상 규모로 오는 2011년 말 개원 예정이며 조선대병원이 위탁운영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부학교 성적 우편통지 없애고 인터넷으로만

“컴맹 학부모 어찌라고”

“정보소외계층 무시 행정편의 발상” 반발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자녀 성적표의 우편통지를 없애고 인터넷으로만 성적을 알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측은 정보공개제 시행에 따른 학교장의 재량권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지만 조순가정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른바 정보소외 학부모들은 “성적표 때문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컴퓨터 학원에 다니라는 말이나”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 학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학교정보공개제에 따라 초·중·고교 학부모들은 인터넷 인증을 통해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표를 기존 우편 통지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올해부터 학생의 성적을 인터넷으로만 공개하기로 했다.

광주 A중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성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공개한다는 가정 통신문을 보냈다. 광주 B고교도 지난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2010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성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은 “1~2학년은 연간 8차례, 3학년은 10차례씩 우편으로 성적표를 발송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교사의 업무량 과중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적표 인터넷 공개는 정보소외 계층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0대의 한 학부모는 “집에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 사용법도 모른다”면

서 “앞으로 아이의 성적을 알기 위해선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학교의 성적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은 “학부모의 인터넷 정보공시(홈페이지 회원) 등 등록은 80%가 넘지만, 지난 1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낸 개설투입 유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불편이 많다면 일선 학교에 협조문을 보내 개선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전체 초·중·고생 25만6천182명 중 가정내 인터넷 설치 등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기초생활수급 학생은 1만4천667명(5.7%)에 이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월 학력평가 수리 가·나 최고점 22점 차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도 여전

지난달 10일 시행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 결과, 수리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만점)이 가형보다 22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도 13점, 과학탐구는 11점에 달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도 여전했다.

서울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고3생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올해 처음 치러진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채점 결과에 따르면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언어 130점(원점수

89점), 수리 가형 141점(85점), 수리 나형 147점(72점), 외국어 140점(88점)이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만점)은 수리 나형이 1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리 가형이 155점으로 차이가 22점에 달했으며 외국어 151점, 언어 140점이었다. 사회탐구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13점(법과 사회 86점, 한국지리 73점), 과학탐구는 11점(물리1 85점, 지구과학 174점)이었다.

/연합뉴스

독감 환자 급증

큰 일교차·황사 영향 .. 광주 병·의원마다 '북적'

환절기 꽃샘 추위와 황사 등의 영향으로 계절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지역 병·의원에 따르면 24일을 전후해 독감 환자와 알레르기성 감기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번 독감은 최근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15~20도 가량 격차를 보인다. 지난달 20일 사상 최악의 황사가 광주·전남지역을 덮친 이후 기온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독감의 전염성이 강해 동일한 공간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나 학생들의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독감 환자들은 대부분 온 몸이 수시로 결리는 근육통과 고열, 두통 등에 시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3일간은 심한 고열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린이나 유아의 경우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황사로 인해 비염이나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도 줄도 잇고 있다.

광주시 남구 A가정의원은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독감 환자가 하루 한 명 정도 방문했는데, 하순부터는 매일 20명 정도가 내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동구 N의원도 최근 독감 환자와 일반 감기환자가 급증하면서, 출근 및 등교하는 환자를 위해 아침 진료 시간을 30분 앞당긴 상태다.

홍경표 내과 원장은 “철저한 개인 위생이 최선의 독감 예방법이며, 감염 환자는 될 수 있는 한 격리하는 것이 좋다”면서 “어린이의 경우는 일교차를 고려한 옷차림과 잠자리의 온도 및 습도 관리, 감염성 충분한 휴식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2억원 과일상자 담양 익명 천사 '등불 장학금' 첫 수혜자 2명 선정

의용소방대원 자녀

“2억원 과일 상자”로 잘 알려진 담양군 ‘등불 장학금’의 첫 수혜자가 선정됐다.

재단법인 담양화학회회는 1일 오전 담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등불장학금 첫 수혜자들을 초청, 전달식을 갖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장학금 수혜자는 호남대 2학년 송용기(22)씨와 송원대 2학년 김권태(22)씨로 각각 200만원, 15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졸업 때까지 매년 400만원, 300만원의 장

학금을 지원받는다.

등불장학금은 지난해 7월 익명의 독지가가 토마토 상자에 넣어 담양군에 맡긴 2억원으로 조성됐으며, 장학회는 매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혜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회는 “소방대원의 자녀를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상자 안쪽에 적은 독지가의 뜻대로 지역에서 7년 이상 거주, 경력 5년 이상 군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 가운데 성적과 생활정도를 심사, 지원자를 선정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6월 수능 모의평가 EBS교재 50%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10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지난달 31일 발표하고 EBS 수능교재에서 50%를 연계해 출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6월 모의수능 50%, 9월

모의수능 60%, 11월18일 본수능 70%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고, 모든 영역은 수험생이 임의로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4월5~15일이며 재학생은 학교에,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학원에, 또 검정고시생 등은 주소지 관할 79개 시립지주 교육청이나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0분 해질 18시 53분 달돋이 21시 35분 달질 07시 09분

무심한 하늘-오늘도 비
남해상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부터 점차 개겠다.

광주	흐리고비	10/12°C
목포	흐리고비	11/12°C
여수	흐리고비	11/13°C
완도	흐리고비	10/12°C
구례	흐리고비	10/13°C
애남	흐리고비	11/13°C
장흥	흐리고비	10/13°C
고흥	흐리고비	11/14°C
순천	흐리고비	10/13°C
영광	흐리고비	10/12°C
진도	흐리고비	11/13°C
전주	흐리고비	10/13°C
남원	흐리고비	7/10°C
목산도	흐리고가비	10/11°C

지역	종량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	낮음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	주의	낮음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후북서	2.0~3.0m	☀	목포	03:36 08:41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후북서	2.0~4.0m	☀	여수	10:20 04:15
	서~북서	2.0~4.0m	☀		22:53 16:1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4/13	3/17	5/17	9/15	8/15	5/17

오전부터 비 ... 밤에 그친 뒤 황사

광주·전남지역은 1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밤 그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남해안지방에 천둥·번개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지역간 강수량 차가 커 기상예보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의 경우 40~

70mm, 광주시와 전남 일부지역 30~50mm가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2.0~4.0m, 서해남부 전 해상과 남해서부 앞바다에서는 0.5~2.5m로 일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늦은 밤 비가 그친 뒤 2일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국 도시 16곳 교통정보

경찰 '트위터'로 알려준다

경찰청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한 광주 등 전국 도시 16곳의 교통정보를 1일 오전 7시부터 '트위터'로 알려준다.

경찰은 도로감지기 1만6천678대와 CCTV 1천539대, OBE(교통정보 수집 단말기) 장착차량 8천786대 등을 이용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아 '교통알라미(☎1644-5000)'를 통해 제공해왔다.

트위터로 알리는 정보는 지역과 도

로명, 시작 지점~종료 지점, 통행속도와 소요시간, 소통등급(정체·지체·원활), 돌발상황(사고·화재 등), 예고상황(통제·공사·행사) 등이다.

정보가 제공되는 도시는 서울과 수원, 인천, 원주, 천안, 대전, 청주, 부산, 울산, 대구, 포항, 창원, 광주, 전주, 군산, 제주 등 전국 16곳이며, 지역별 트위터 계정은 '#poltraffic'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경찰은 정보 홍수로 시민들이 '팔로워(follower)' 등록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없애려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공휴일 등에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HeartPlus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24시간 중 5분만이라도 심박수 측정하여 건강을 지키세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박수 측정기
5분만에 심박수 측정기 HeartPlus ACID-1000E
심박수 측정기 HeartPlus

광주비의료기술원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박수 측정기
편의성과 정확성 모두 확보

nanom